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3년 11월 19일
제1975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 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8 8206)

사 무 실 : 703 968 3010

팩 스 : 703 968 3013

주 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 sthasang@gmail.com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루카 1,46-47)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토빗 4,7)

가난한 이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인류애, 사랑에 열려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앙은, 모든 가난한 이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며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 중〉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2023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가해)

제 1 독 서 잠언 31,10-13.19-20.30-31 | 훌륭한 아내는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화 답 송 시편 128(127)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제 2 독 서 1테살 5,1-6 | 주님의 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복 음 마태 25,14-30 <또는 마태 25,14-15.19-21>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4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15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16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17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18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19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2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4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26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27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28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29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30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복음 묵상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떤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여야 할까요?

제1독서는 하느님과 그분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라는 구절에서 잠언 전체의 주제, 곧 ‘지혜의 근원은 주님을 경외함’이 드러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는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과(1사 2,11; 예레 30,5-7; 요엘 1,15; 스바 1,14.15; 아모 5,18 참조) ‘빛과 어둠’, ‘낮과 밤’의 대립 명제를 사용하며, ‘깨어 있으라’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잠들어 있음’과 대조되는 ‘깨어 있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마태 25장; 루카 12,35-46 참조).

한편 복음에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종들의 사명은 각자에게 맡겨진 탈렌트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탈렌트’는 당시 일꾼이 6,000 일, 약 16년 반 동안 일하여야 벌 수 있는 액수며, ‘두 탈렌트’는 약 33년, ‘다섯 탈렌트’는 약 82년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의 총합입니다. 이 비유는 각자에게 다르게 맡겨진 조건과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빈부, 교육, 주거, 심지어 꿈의 격차까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탈렌트를 맡기셨습니다. 이 같은 차이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소중한 가치 있는 공동의 지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김상우 바오로 신부>

“가난한 이를 외면하지 마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11월 19일) 교황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서 교황은 “가난한 이를 만날 때마다 외면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2023년 11월 19일) 교황 담화에서 “가난의 큰 강이 우리 도시를 가로지른다”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빈곤 퇴치를 위해 “개인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황 담화는 토빗기에 대한 묵상 해설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난의 규모

교황은 담화 서두에 “가난의 큰 강이 우리 도시를 가로지르며 범람할 정도로 차오르고 있다”며 “우리의 도움과 지원, 연대를 간청하는 형제자매들의 요구가 너무나 커서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요구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생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커지는 반면, 빈곤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황은 특히 “새로운 형태의 가난”의 부상을 강조했다. 예컨대 “전쟁 상황에 휘말린 이들”, 수많은 노동자들이 받는 “비인간적인 대우”, 드라마틱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많은 가정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투기 행위” 등이다.

우리의 책임

교황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비아에게 전해진 토빗의 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초대했다.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 7).

“한마디로 가난한 이를 만날 때마다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 25-37)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선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는 쉽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치 프로세스

교황은 올해가 성 요한 23세 교황의 획기적인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반포 60주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보존권을 비롯해 의식주와 의료, 휴식과 필수 사회서비스 등 삶의 적절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정치 프로세스의 한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교황의 답은 두 가지다. 한편으로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오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빈곤층도 “변화와 책임”의 과정에 참여하고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바티칸 뉴스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3-06/pope-francis-world-poor-day-message-politics-tobit.html>



세계 가난한 이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며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였다. 이날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한다.

2023년 성소 주간 특강

2023년 성소 주간 마지막 행사로 지난 주일 학생 미사 후에 본당 안 다니엘 수녀님이 주일학교 CCD 학생들에게 수녀님의 성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02년 캐나다 토론토 세계 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수녀님이 되었고 현재 수도자로서의 삶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학생들에게 늘 묵주기도를 하기를 권하며 수도자로서의 삶에 대한 소개, 그리고 수도 성소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특강을 마쳤다.

이태섭 신부님도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고 성소에 관한 말씀도 나누었다.



National Vocation Awareness Week

November 5-11, 2023

Our CCD & CYO students bring care packages to our seminarians in Mount St. Mary Seminary



The past week was National Vocation Awareness Week. In honor of National Vocation Awareness Week, CCD and CYO students made a care package with Korean snacks and wrote our seminarians, Paul and Dong Han, cards.

On Friday, November 10, Teachers and students of CCD and CYO went to Mount St. Mary Seminary to deliver notes and care packages. Once at the Seminary, Paul and Dong Han had lunch with us and gave a tour of the seminary.

Please pray for the formation and discernment of our seminarians, Paul and Dong Han, so they can continue to discern to follow their calling.

1 연중 제33주일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 주제 : “누구든지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토빗 4,11)
-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2차 헌금에도 사랑을 행해주세요.

2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19일(일) 오전 11:30 (B-3,4)

3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19일(일) 오전 11:30 (A-1,2,3,4)
- 안나회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4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19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5 루카회 월례 회의 (6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11월 26일(일) 오전 11:30 (B-3)

6 요한회 월례 회의 (5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11월 26일(일) 오전 11:30 (B-1,2)

7 KoC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26일(일) 오전 11:30 (B-4)

8 첫 영성체반 등록

- 2024년도 첫 영성체반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첫 수업 : 2024년 1월 3일(수)
- 등록 : 11월, 12월 하상관 입구 (주일 오후 2시 미사 전)
- 신청서는 본당 주보대 쪽과 하상관 교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9 대림(성서주간) 특강

- 대림시기를 준비하며 성서 주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1월 30일(목) 오후 7시
- 주제 : “창세기와 함께 하느님을 만납시다.”(창세기 1장)
- 일시 : 12월 1일(금) 오후 6시 미사 후
- 주제 :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요한 17장)
- 강사 : 박재식 토마스 신부(라스베가스 한인 성당 주임)
- 2002 - 2013년 페루 선교
- 2019 - 2022년 파라과이 선교
- 현재 라스베가스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주임

10 영화 상영 - “탄생”

- 한국 가톨릭 최초의 사제이자 천주교 성인으로만 알고 있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일대기를 청년 모험가이자 개척자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그의 삶과 죽음을 다룬 영화입니다. 대림 시기를 준비하며 김대건 신부님의 영화 ‘탄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일시 : 12월 8일(금) 오후 6시 미사 후 (친교실)
- 금요일 미사는 오후 6시로 변경됩니다.
- 예고편 : <https://youtu.be/b0psTHkKXGo>

11 2024년 매일미사 신청 및 병초(Box) 주문

- 성물부에서 2024년도 매일미사 책 신청을 받습니다. 1년분은 \$90이며, 날권은 \$9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쓰일 제대초 봉헌도 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성물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irfax Memorial Park 추모행사

- 일시 : 12월 17일(일) 오후 6시
-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행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하십시오.

11월 위령성월

위령성월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정화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 선행을 베푸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느님 나라에 먼저 간 모든 성인들이 현세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눈물을 줄이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운다는 것은 잘못된 아니지만
당신을 떠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 성 암브로시오

교황님의 11월 기도 지향 | 교황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교황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맡겨진 양 떼와 동행해 나가시도록 기도합니다.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남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축복 속에 기쁨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새 영세자분들께서 감사 헌금으로 \$96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11/19 이번 주	센터빌 4구역
11/26 다음 주	페어팩스 1구역

성당 청소

11/19 이번 주	버크 1, 2구역
11/26 다음 주	버크 3, 4구역

성당을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11월 12일
(연중 제32주일)

봉헌금	\$ 7094.14
교무금	\$ 8,010.00
교무금(신용카드)	\$ 2,910.00
감사 헌금	\$ 410.00
2차 헌금	\$ 3,553.00
온라인 봉헌	\$ 1,580.00
합계	\$ 23,557.14

버지니아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11월 23일(목) 오후 5:00 - 6:00
11월 24일(금) 저녁 8:00 - 9:00
11월 26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성서 못자리 : 김덕재 신부

[제 5강] ‘마태오 복음 예수상의
형성과 그 배경’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